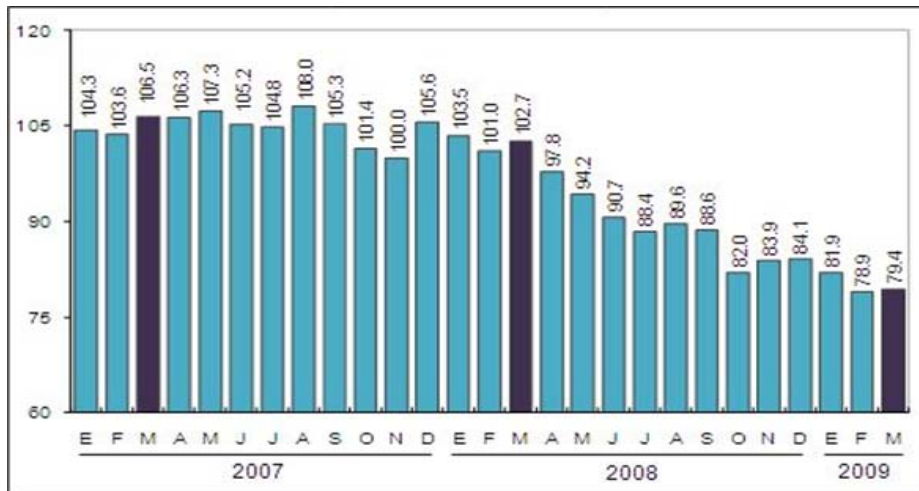


멕시코 경제 동향('09. 4월)

□ 소비자신뢰지수

- 멕시코 32개 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3월중 멕시코 소비자신뢰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102.7) 22.6%가 감소한 79.4 (2003. 1월 = 100)를 기록했으나 전월대비로(78.9)로는 0.5 상승하면서 최근 11개월 연속하락세 멈춤

멕시코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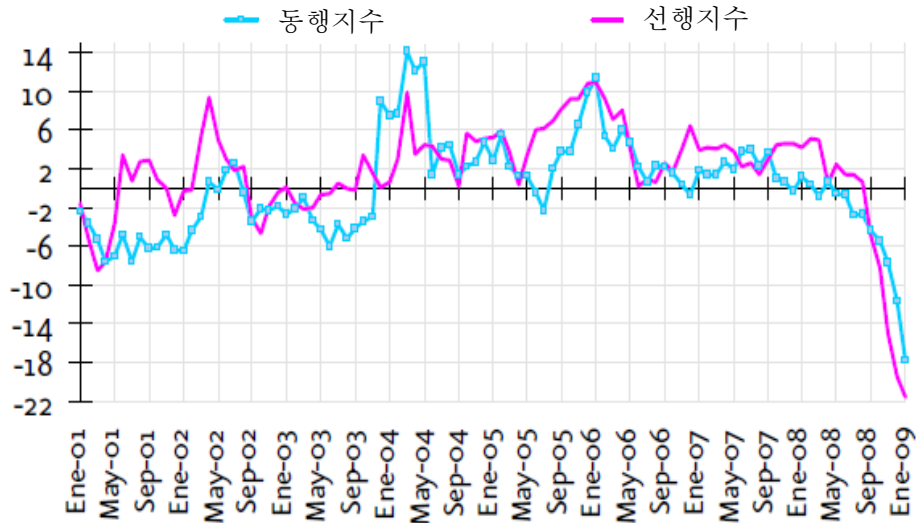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및 통계청

□ 경기종합지수

- '09. 1월의 멕시코 선행지수는 환율 상승, 주가 및 제조업 가동률 하락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0.8% 감소한 105.8을 기록, 한편 원유수출가격 상승, 건설관련지수 소폭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경기동행지수는 동국 산업활동지수 및 소매순매출 감소, 실업률 증가 등 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 전월대비 3.6%가 감소한 100.2를 기록

경기종합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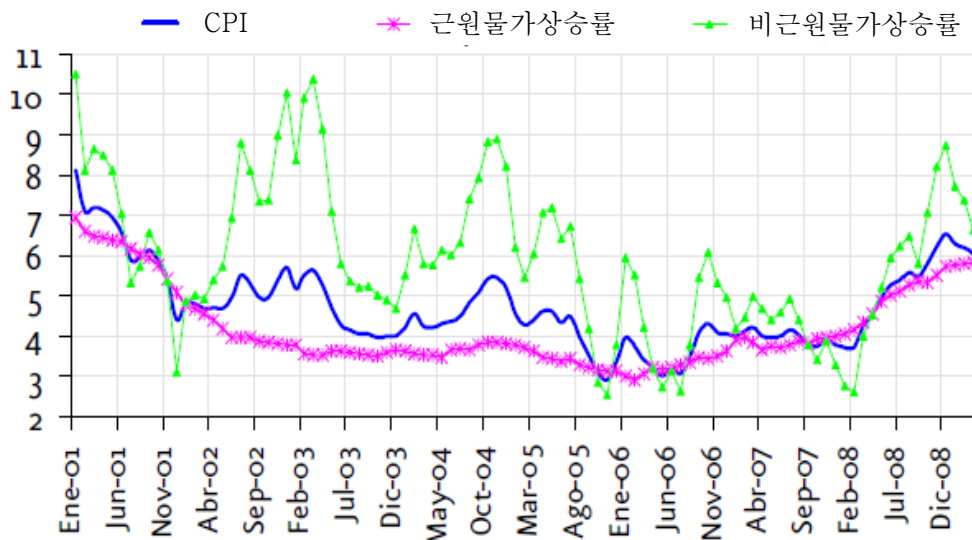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인플레이션

- 멕시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3월중 물가상승률은 0.58%가 상승했으며, 금년 누적기준으로는 1.0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한편, 동 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연말 물가상승률은 전월 전망치 보다 0.16%p가 낮은 6.04%로 예상

멕시코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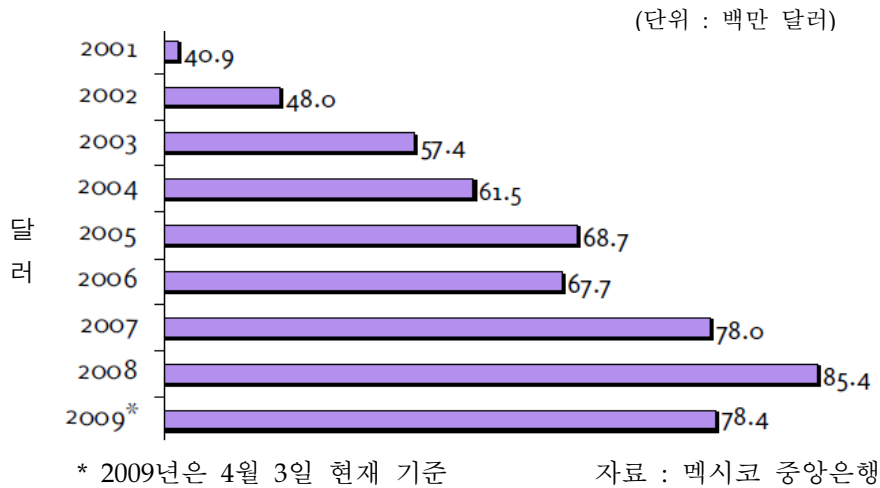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외환보유고

- 4. 3자 현재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78,401백만 달러로 정부의 달러 매입 및 은행 앞 달러 매각 등으로 전주대비 603백만 달러가 감소했으며, 전년말 대비로는 7,040백만 달러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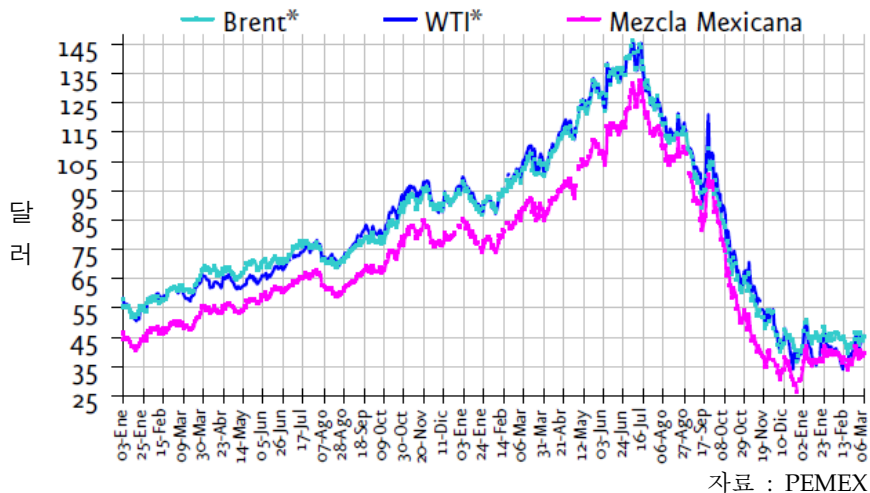
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



□ 원유수출가격

-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4. 7자 기준 배럴당 46.23 달러로 4. 3 대비 2.24% 떨어졌으며, 연초대비로는 35.10% 상승
- 한편, 서부텍사스중질유는 5.96% 하락한 49.38 달러에 거래되었으며, 북해산브렌트유는 51.59 달러로 전주대비 3.5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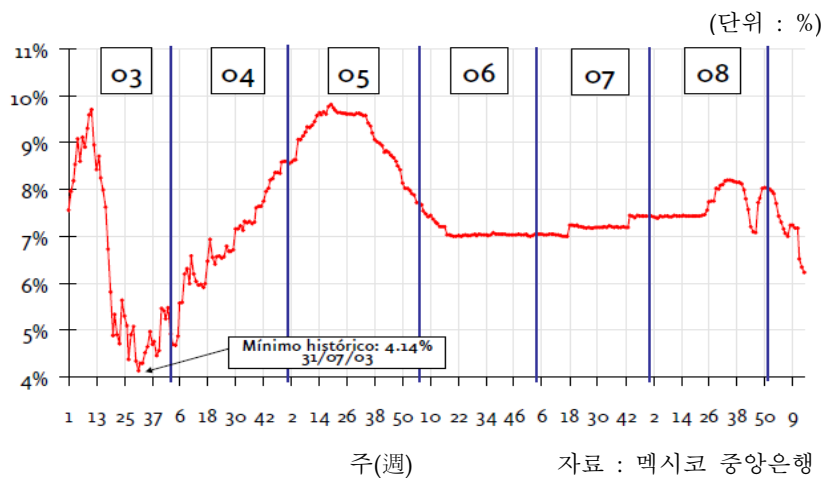
원유수출가격동향(배럴당 가격)



□ 금 리

- 최근 멕시코 기준금리(CETES)는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참고로 4. 6자 현재 29일물, 92일물, 183일물 금리는 각각 11bp, 21bp, 16bp 하락한 6.24%, 6.13% 및 6.14% 기록
- 한편, 20년 및 30년 만기 정부채도 각각 105bp 및 50bp가 떨어진 8.18% 및 4.44%에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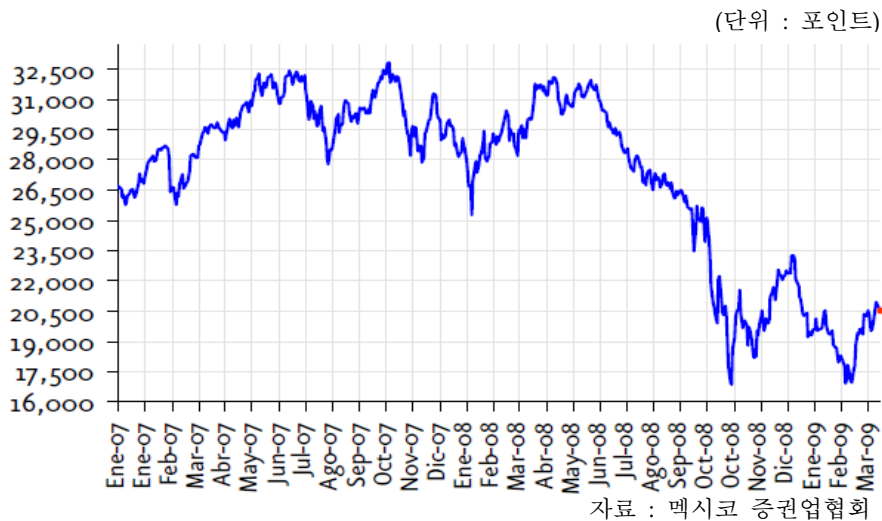
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CETES 28일물 기준)



□ 주식시장

- 4. 8자 멕시코 IPyC지수는 4. 3 대비 1.93% 하락한 20,530.63을 기록했으나, 2월 바닥을 형성한 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초대비로는 폐소화 기준으로 8.26% 하락, 달러기준으로는 5.05%가 하락

멕시코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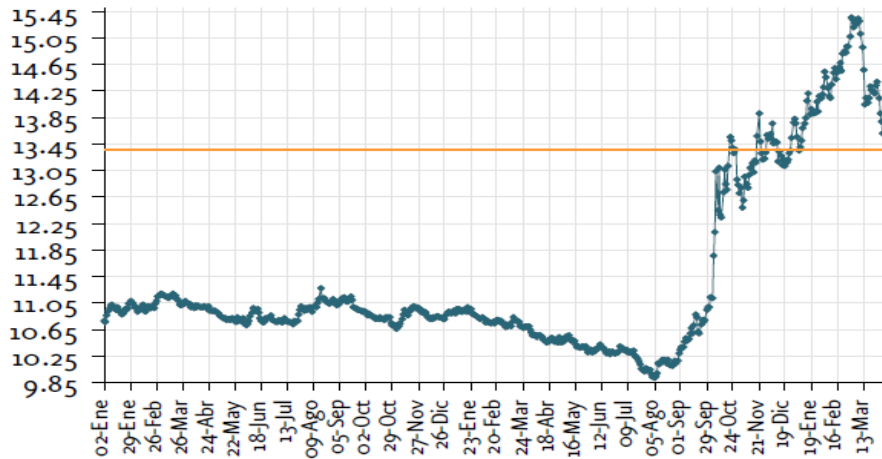


□ 환 율

- 4. 8자 현재 대미 달러 환율은 전주 대비 24.89 centabo 하락한 13.3648페소에 거래되었으며, 현재까지의 누적평균 환율은 연초대비 46.77 centabo 절상된 14.3137P/US\$ 기록

페소화 대미 달러 환율 동향(2007~2009)

(단위 : 페소/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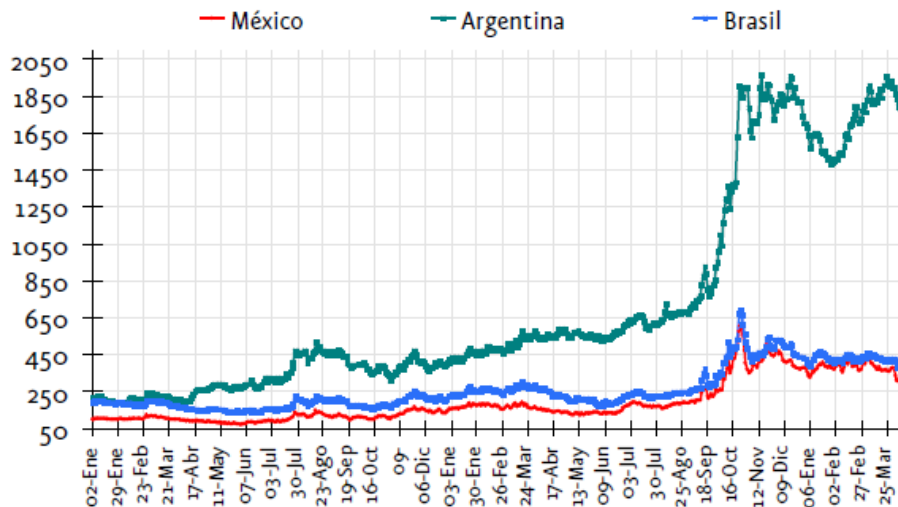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국가위험도

- 4. 8자 현재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 개도국 위험지수(EMBI+)는 전주대비 13p 상승한 322p를 기록했으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경우 각각 1,785p 및 381p로 전주대비 리스크 감소

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EMBI+)

(단위 : basis point)



자료 : JP Morgan

2. 기관별 경제 전망

□ BBVA Bancomer, 멕시코 인플레이 하락 추세 지속 전망

- Bancomer은행은 멕시코 인플레이 전망을 2월 6.2%에서 6.04%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경기변동 가능성 및 근원물가 하락에 대한 저항 등의 요소로 인한 상승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언급
- 동 은행은 통화 안정 및 금리 약세가 예상되는 2분기부터 멕시코의 인플레이 하락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 INVEX, 멕 중앙은행 4월중 금리 인하 예상

- 금융그룹인 INVEX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4월 17일 경 기준금리 5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 동사는 인플레이 하락 추세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말 금리가 5.5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INVEX는 중앙은행이 4월중 인플레이가 단기간 소폭 상승할 것이나, 멕시코 경제활동 위축과 물가 상승 에너지 약화, 폐소화 절상 추세로 인해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 Santander은행, 적극적 통화정책을 위해 폐소화 안정 필수

- Santander은행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언급
- 동 은행은 최근 멕시코 정부가 IMF로부터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을 통해 470억 달러를 차입한다는 소식은 멕시코와 멕시코 주식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폐소화 환율 상승 압력이 감소되었고, 외환시장 유동성 공급과 멕시코 기업의 외화 차입에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
- 멕시코 정부는 이번에 설정된 신용한도를 당분간 사용할 계획은 없으나, 2010년 중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자금조달 우려 해소될 것으로 예상

□ Merrill Lynch, 멕시코 경제성장률 -3.2%로 하향 조정

- Merrill Lynch는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률을 -3.2%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2008년 미국의 경기 침체가 멕시코에 충격을 주었으나, 실제 그 파급 효과는 금년 초부터 멕시코 제조업 수출 특히 자동차 수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언급
-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서비스 산업으로도 옮겨가는 등 이미 멕시코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그러나 2010년에는 미국 경제가 1.9% 성장하면서 멕시코 경제성장률도 2.1% 성장할 것으로 Merrill Lynch는 전망

<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 >